

Quiet but Powerful

LUKSTUDIO

취재 김예숙



Christina Luk

>>> Profile

2011 Established LUKSTUDIO

>>> Award

2015 Azure Magazine, Listed "The Top 10 Interiors of 2015"
GOODGOOD, Listed "The Top 10 Young Designers"

'불가능은 없다'라는 포부 아래, 개성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LUKSTUDIO는 과감한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굳은 신념으로 참신한 공간을 선사한다.



중국 Shanghai를 기반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LUKSTUDIO는 상업 및 오피스 공간 분야에서 역량된 두각을 나타내는 인테리어 디자인 그룹으로, 각 공간의 스토리를 그린색 주제로 디자인 언어로 물어낸다. 인테리어 최근 활동 분야를 넓혀 공간에 꼭 들어맞는 가구를 제작하는 등 하나부터 열까지 한바탕 디자인을 주제로 공간 아이덴티티를 구축한다.

그들의 창립자이자 대표 디자이너 Christine Luk은 부드러운 이소와는 달리 강렬한 풍格將으로, 삶을 초기부터 딜레마를 힘껏 게이크하고 있다. 종종에서 나고 자란 그녀는 어렸을 적부터 동서양 문화를 접하여, 강약적인 감각과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자연스럽게 기웠다. 그녀는 University of Toronto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협회 Ontario Association of Architects(OAA) 멤버를 역임하는 등 세금과는 실력을 쌓았다. 지난 2007년에는 Shanghai에 본거지 으로 자리 잡아 BH+ Architects와 Neri & Hu Design Research Office에서 디자이너 및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해 도시 개발부터 공공 및 상업, 전시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현장 경험을 쌓아왔다. 이후 2011년, 오랜 시간 갖고 있던 디자인 실력을 활용해 삶의 LUKSTUDIO를 설립했으며, 단단한 실력의 국내외 디자이너를 구성해 다양한 문제 속에서 디자인에 관한 목표는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젝트마다 설계이론과의 요구를 연원히 분석하는 그녀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구현한다.



Office around a Tree



LUKSTUDIO 2016 100% DATE/Noodle Rock'n'Roll
한국인의 브랜드는 한정판입니다.

Noodle Diner Sanlitun SO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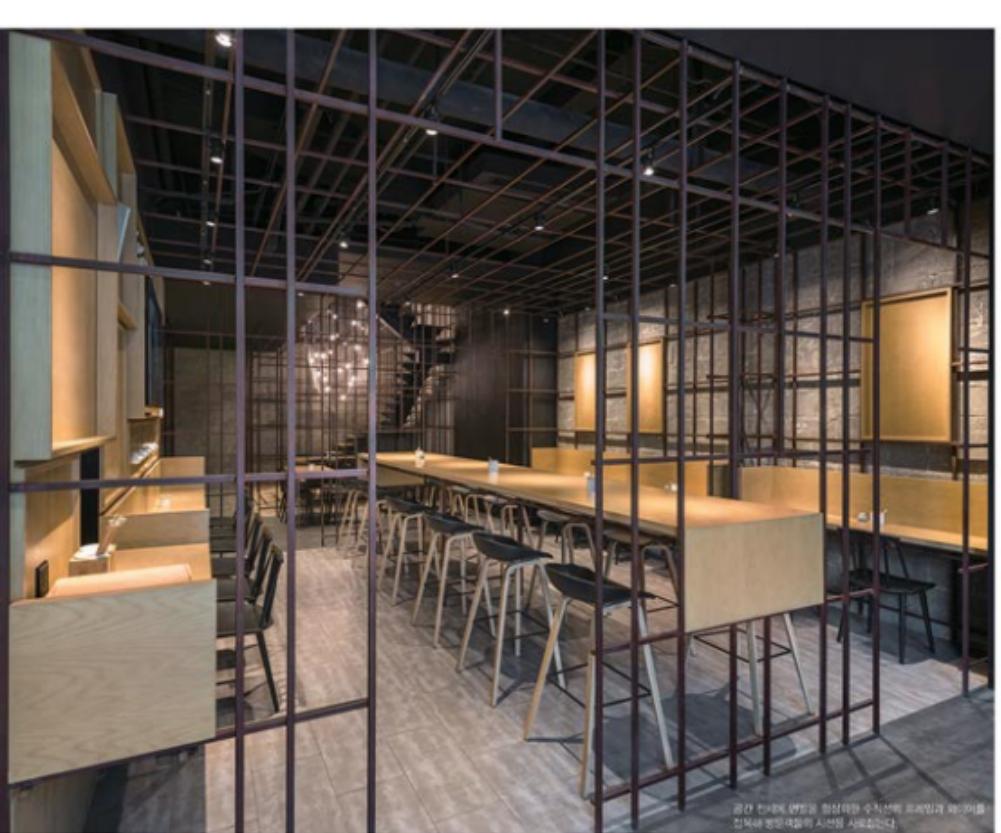
Design / LUKSTUDIO - Christine Luk

Design Team / Cai Jin Hong, Shanyun Huang, Leo Wang, Yifei Lin, Alba Berroz Blazquez, Marcella Chado Rana, Pao Yee Lin

Location / Shop 1-122, Sanlitun SOHO, Beijing, China

Area / 200m²

Photography / Dirk Weibl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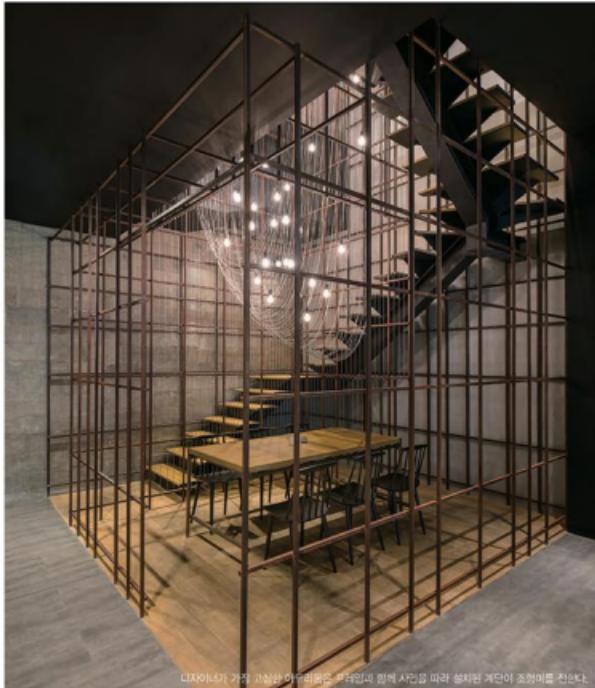


공간 한가운데, 면발로 형성되었던 수직선의 프레임과 와이어를
집목해 중앙 역할의 시선을 사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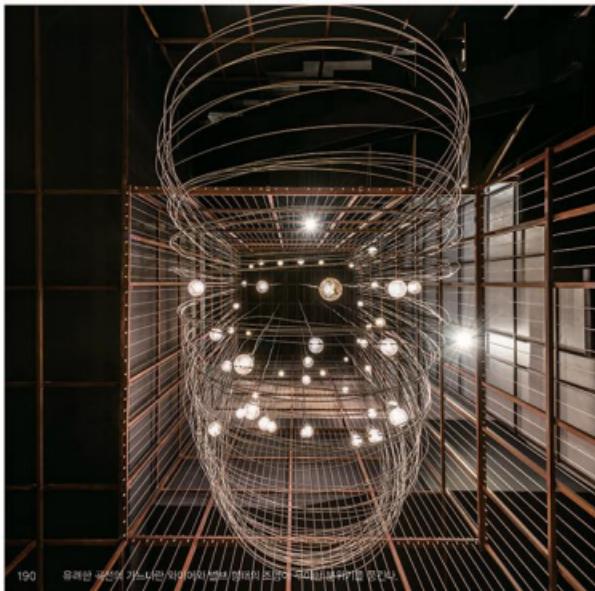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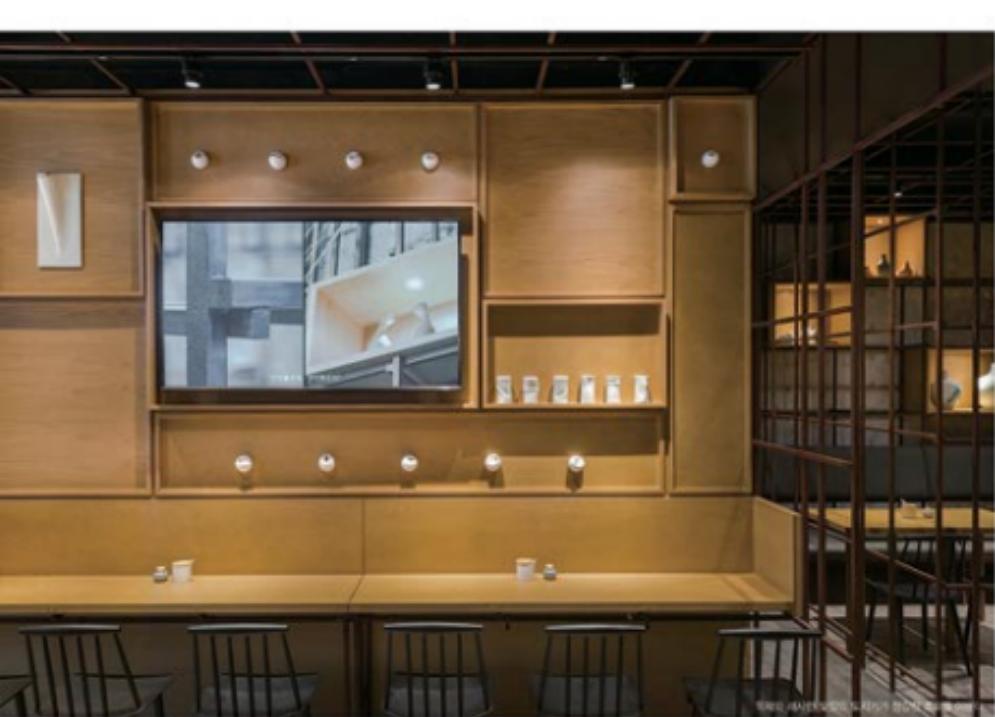
Noodle Diner Sanlitun SOHO 프로젝트는 LUKSTUDIO가 지난해 10월에 디자인한 Noodle Rack에 뒤이은 Longxiaoobao 플래그십 레스토랑으로, 면발을 형상화한 수직선의 프레임과 가느다란 와이어를 공간 전체에 걸쳐 독특함을 발산한다.

부식된 철제 및 구리만으로 벽면을 조성해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아내는 입구는 작은 유틸리티 사이로 연못 보이는 내부의 모습에 보는 이들의 궁금증을 자극한다. 총 2층 규모의 공간은 고급스러운 브라운 톤을 주조색으로, 불쾌 컬러의 현장과 절감이 두드러지는 벽들을 쟁은 벽체, 우드 소재의 바닥이 중후한 이미지를 자아낸다. 또한 얇은 철제 프레임이 수직으로 교차하며 공간 전체를 감싸는 강렬한 디자인이 시선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우드, 헥사 등 물질이 살아있는 소재가 공간을 풍성하게 제운다.



디자이너가 가장 고심한 이유비중은 프레임과 함께 사각을 따라 설치된 계단이 조망미를 전해낸다.





복제 바다과 가구로 내추럴한 분위기를 풀기는 1층은 작은 규모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10명 가량 앉을 수 있는 긴 테이블을 다이닝룸 중앙에 두고, 작은 사이즈의 테이블 및 의자를 벽으로 붙여 긴 테이블이 중심축이 되는 원형 동선을 구축했다. 특히 디자이너가 가장 고심한 아트리움은 바다부터 건물의 천장까지 개방된 구조의 경사각형 공간으로, 시선을 따라 설치된 계단이 조형미를 전한다. 또한 유쾌한 곡선을 그리는 얇은 화이어와 캐래식한 멜트 형태의 조명은 천장에서부터 끌어들려 후아한 분위기뿐 아니라 시각적 즐거움도 주었다. 한편 2층에 위치한 VVIP룸은 아트리움에서 사용한 화이어와 멜트형 조명을 가장 자리에 설치해 백제 없이 공간을 구划分하면서도 디자인에 일관성을 부여했다. 이밖에도 후드 소재의 크고 작은 규모로 배변 끗곳을 제우고, 세시한 빛깔의 도자기를 두어 정갈하게 꾸몄다.





Office around a Tree

Design / LUKUSTUDIO - Christina Luk

Design Team / Wesley Shu, Scott Baker, Marie Li

Location / Li-Hong, Shanghai, China

Area / 133m²

Photography / Peter Daze for LOTSA Architectural Photography





화이트 톤의 그레이 톤의 원조스트리밍을 활용하여 자연을 내부화한 공간이다.

건물이 빽빽이 들어선 별당을 사이에 살피자면, 자연이 주는 향긋한 풍내음이 그리워지기 마련이다. *Office around a Tree* 프로젝트는 LUKSTUDIO의 오피스로, 인감이 자연과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준다.

25세기 Shanghai의 시간을 머금어 에스토니 Li-long 지역에 자리 둘은 공간은 거대한 남매 나무가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었다. 설계 초기 당시, 나무는 133㎡의 협소한 공간에 걸린적이었으나, 자연을 사랑하는 디자이너는 나무를 그대로 보존하기 원했다. 이에 나무가 있는 곳을 안뜰로 조성해 냇물을 내부로 들였으며, 계절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하는 나무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도록 유리 벽체를 두었다.



나무가 있는 곳을 안뜰로 조성해 물방울 전으로 들이고,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나무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도록 유리 벽체를 두었다.



한편 화이트 컬러와 그레이 톤의 콘크리트 소재로 깔끔한 인상을 전하는 공간은 입구에 복잡한 갤러리한 구성을 일반 사무공간의 정형화된 디자인을 벗어냈고, 좁고 긴 형태의 내부를 통장과 오른 구조로 제안해 답답한 느낌을 상쇄시켰다. 이밖에도 업무공간에는 서무용품 및 소품을 걸어둘 수 있는 화이트 컬러의 폴보드를 완족 벽면 전체에 설치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으며, 폴보드는 연출 소품에 따라 자유로운 패이아웃을 취할 수 있어 편리하다. Office around a Tree 프로젝트는 답답한 사무공간에서 벗어나 시원한 그늘과 쾌적한 향기 깃든 자연 속에서 직원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일터이자 쉼터로 자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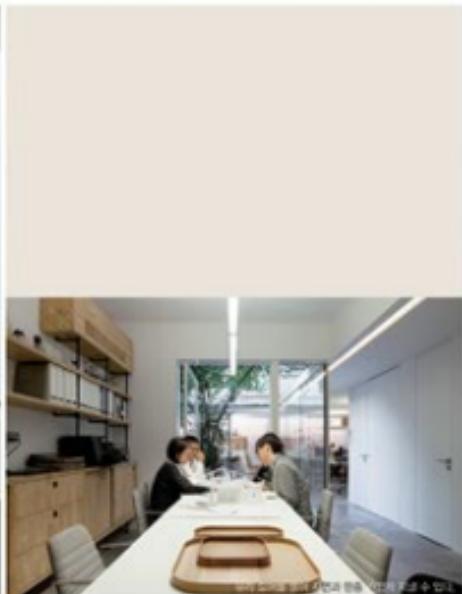
124 책으로 면을 소화해 따라 자료로 개인이 찾을 수 있다.



꽃들과 자연 구조를 활용한 흐르는 대형 창문을 주었다.



업무 공간 한 틈 빼면 전시에 사용될 디자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수 있는 박스는 실제로 설치해 공간 활용률을 극대화했다.



나무가 주는 시원한 그늘과 흡음한 환경이 혼인은 축제로 전시한다.





LAB

Design / LUKSTUDIO · Christine Luk
Design Team / Wesley Shu, Kavish Chay
Location / Jing'an District, Shanghai, China
Area / 180m²
Photography / A-Kai Photo Studio





2층으로 구성된 빈티지 스타일 뷰드의 바 LAB은 벤디지
와인 쇼케이스로 충분한 빛이 흘러온다.



좌방면 그램이 베이직한 백색에 디자인 그리기를 접해 보았던 주인공.

거지지 않는 물빛으로 화려한 도심의 밤, 인더스트리얼 뷰드의 바 LAB은 묵직한 무게감을 전하며 그만의 색깔을 펼친다. 중후한 분위기와 벤디지 스타일이 혼재하는 2층 규모의 공간은 부드러운 간접 조명과 푸르한 잘 닦여로 보이는 내부가 세련된 뷰드를 즐겨 오가는 이들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열린 공간으로 2층 천장까지 딱 트인 뷔를 자랑하는 내부는 백제 대신 가구로 공간을 나눠 자유로운 바의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책을 보는 사람과도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편안하게 꾸며진 공간은 안락한 느느느의 브라운 및 몽마 텁커를 매인 컬러로 삼고, 본 그레이트 백제와 철제 난간, 바엔 듯한 가죽 및 나무 소재의 가구를 두어 러프한 뷰드를 형성한다.



바는 영린 공간으로 2층 친환경 카페로 인기 상승 차를 차거나 커피를 즐길 수 있다

1층은 바엔터가 음료를 제조하는 과정을 감상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대규모의 인원이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은은한 조명과 함께 깨끗한 리인의 유타입을 천장에 달을 듯 벽면에 가득 채워 이색적인 디자인을 연출했다. 낮은 천장과 블랙 컬러의 벽체가 고지한 무드를 풍기는 2층은 소규모 모임에 적합하도록 프라이빗하게 꾸몄고, 클래식한 스타일의 소품과 장식을 더해 향긋한 각색의 풍미를 더욱 자극한다.

이렇듯 한진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바 LAB은 다채로운 스타일의 가구와 소품으로 곳곳을 채워 풍성한 볼거리와 달콤한 추억을 선사한다. □



1층 뜻한 가죽 및 무드 소재의 가구가 따뜻한 무드를 정성한다



바관문과 절제 걸러온 매인 카페는 전부 어느 드레스 꾸몄다



2층은 노마드 공간으로 활용되며 편의 고사양 뷔페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관람에 맞을 든 커리어에 가득 차려 아시아인 디자인을 한출했다.

